

# 국내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 및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atus of RDA and Librarians' Perceptions in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조 성 원 (Sungwon Cho)\*

###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시사점   |
| 3. 연구 설계  | 6.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에 관한 인식, 대학도서관에서 RDA 적용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대학도서관에 RDA 목록규칙 정착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을 통해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및 대학도서관 RDA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항목을 작성하였고 국내 대학도서관 목록규칙 적용현황 및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서양서 목록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및 대학도서관 RDA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AACR2에서 RDA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RDA 교육의 확대 및 교육과정 개발, 도서관 기관 차원에서 RDA 형식 구비, 적용지침 마련 등의 노력 및 지원이 필요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기관 차원에서 RDA 적용지침 제정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RDA by domestic university library librarians, the current status and plan of RDA applic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and propose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RDA in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items were prepared to investigate librarians' perception of RDA and the status of RDA in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application status of cataloging rules and education status of cataloging rules in Korea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conversion of the cataloging rules from AACR2 to RDA requires expansion of RDA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librarians, and efforts and support such as preparing RDA format and application guidelines at the library level. At the level of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mplica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enacting RDA application guidelines were presented.

키워드: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목록, 목록규칙, MARC 21, RDA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library catalog, Cataloging rules, MARC 21, RDA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swcho90@yonsei.ac.kr / ISNI 0000 0004 7396 7503)

논문접수일자: 2022년 7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8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363-389,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363>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RDA 운영위원회(RDA Steering Committee)는 2008년 AACR2R(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ition Revised)을 전면 개정한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초안을 완성하였고 2010년 RDA 책자형과 RDA Toolkit을 발행하였다. RDA는 모든 유형의 자원에 대한 서지기술과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고, FRBR, FRAD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설계되었다. RDA는 발표된 이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다.

2019년 4월 RDA는 3R 프로젝트(RDA Toolkit Restructure and Redesign)를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3R이 RDA에 내용상으로 LRM(Library Reference Model)을 반영하고, 외형적으로 링크드데이터에 맞게 RDA Toolkit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임을 고려하면, LRM 적용이 RDA 개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화, 2019; RDA Steering Committee, 2017).

개정된 RDA는 이용자 중심의 링크드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도서관 및 문화유산 자원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요소, 지침, 규칙의 집합이다. 또한, 개정된 RDA 지침에 따라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도서관 및 문화유산 컬렉션에 있는 자원의 발견과 식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IFLA LRM을 개념모델로 하고 있다. 개정된 RDA는 목록 매뉴얼이 아닌, 서지 세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체계를 제공하는 국제표준이다(RDA Steering Committee, 2021).

현재 RDA는 원본 버전(2010-2017)과 공식 버전이 있다. 원본 버전은 2010년에 출간된 버전으로 2017년 4월 수정본 배포 이후 개정이 종료되었다. 2018년 6월 3R 프로젝트가 반영된 베타 버전이 2020년 12월 RDA의 공식 버전이 되었다. RDA 운영위원회는 공식 버전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두 버전 중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RDA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월부터 LC, OCLC에서는 목록 작성 시 RDA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LC에서는 RDA의 수용을 위해 서지데이터용 MARC 21과 전거데이터용 MARC 21을 개정하였고 OCLC에서는 회원도서관들에게 RDA 적용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 북미와 유럽 주요 국가의 도서관들은 2013년 3월 31일 이후부터 RDA를 적용한 서지 레코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LC의 협력 국립도서관인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British Library, Library & Archives Canada, Deutsche Nationalbibliothek(DNB),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는 2013년 1분기까지 RDA 지침을 따라 레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Library of Congress, 2012).

국내의 현황을 조사해보면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에서 RDA 최종판 이전 버전에 대한 본문의 번역본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RDA를 토대로 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통합서지용(2014)’을 개정하였고 2015년 1월부터 서양서 목록 시 RDA 목록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 RDA가 발표된 이후로 10년 이상 경

과하였고 이미 해외 많은 도서관에서는 RDA를 적용하여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 RDA가 반영된 LC, OCLC 목록을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RDA에 관한 국내 현황 파악 및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국제적인 목록규칙의 흐름은 2010년 RDA 발표 이후, 2019년 RDA의 전면적인 개정까지 진행된 데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RDA 목록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RDA가 2010년 발표된 이후 학부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 반영된 기간을 고려한다면 경력직 사서들 상당수가 대학 교육에서 RDA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서 사서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에서 RDA에 관한 독립적인 교육과정은 개설되지 않았다. RDA 교육은 KORMARC에 관한 교육 중 일부분으로 RDA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습득하도록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RDA에 대한 인식과 이로 인한 전문성의 정도는 해당 도서관의 목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사서들의 RDA에 대한 인식 정도는 RDA 목록규칙 현황조사와 더불어 행해져야 한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국외서에 비해 국내서 비중이 높은 반면, 대학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국외서 비중이 높다. 국외서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양서의 경우 신규목록 시 RDA가 적용된 MARC 21을 반입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RDA의 적용현황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대학도서관에서 RDA의 적용현황,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

에 대한 이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에 관한 인식 및 요구, 대학도서관에서 RDA 적용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대학도서관에 RDA 목록규칙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RDA에 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기존의 RDA 목록규칙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Hichens와 Symons(2009)는 목록자들이 RDA 교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제시하였다. 준비할 사항에는 FRBR에 대한 이해(FRBR의 개체, 관계, 이용자과업 등), RDA에서 사용되는 용어, RDA의 구조, AACR2에서 RDA로 변화된 규칙 내용, RDA의 선택사항에 대한 지식, RDA를 반영한 매뉴얼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RDA 테스트 조정위원회(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는 미국에서 RDA 채택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과 기술적, 운영적, 재정적 측면을 평가하였다. 설문조사의 유형은 레코드 생성에 관한 질문, 레코드 생성자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 레코드 이용자 설문조사(레코드의 이용 가능성과 이해력), 기

관설문지(기관에서 RDA 실행과 영향에 관한 질문), 비공식 참가자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RDA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었고, RDA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결과가 분석되었다.

Sanchez(2011)는 RDA와 AACR2에 대한 지식수준 및 인식을 도서관 사서,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설문조사에는 목록 담당자나 관리자 등이 71% 참여하였다. 설문내용에는 RDA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RDA 교육에 관련된 내용, RDA의 비용 등 RDA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었다.

Sanner(2012)는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목록 부서 책임자들의 RDA에 관한 인식 및 RDA에 관련되어 예비교육, 향후 받게 될 교육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RDA 교육유형, 교육내용, RDA 교육에 관한 인식 등이 속했다. RDA 인식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RDA 교육이 RDA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들 88%가 RDA 교육이 목록 부서 팀원들의 RDA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김정현(2013)은 국내 목록 전문가의 KCR4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수와 사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질문에 RDA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설문문항 2개를 포함하였다. 그 내용은 AACR2가 RDA로 개정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과 RDA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관한 문항이었다. 조사 결과, AACR2가 RDA로 개정된 사실에 대해 63.33%가 알고 있고, RDA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업무교육(65.67%)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Haider(2016)는 6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RDA에 관한 도서관의 인식, 실행의 편이성, 사서교육과 이용, 이용자에게 의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ILS 시스템과 RDA의 통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목록 생산성에 대한 RDA의 영향, RDA를 적용하여 목록 시 이전 목록규칙보다 추가된 시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MacLennan 등(2019)은 목록분야의 유명한 리스트서브 두 군데에서 RDA에 관한 목록 사서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그들이 직면한 현재의 이슈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RDA와 도서관 참조모형(LRM)의 기반이 되는 개념의 이해에 관한 목록자들의 의견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목록자들이 RDA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RDA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목록자들은 미래의 목록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목록자들과 RDA 운영위원회 간의 의견교환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 2.2 RDA를 도입한 주요 각국 도서관의 사례 분석

대학도서관에서 RDA 적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RDA를 도입한 주요 각국 도서관의 사례 중 도서관에서 RDA를 적용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 북미와 유럽 주요 국가의 도서관들은 2013년 3월 31일 이후부터 RDA 적용을 결정하고 서지레코드를 생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외국의 주요 도서

관 및 도서관 전문 단체에서는 RDA의 실질적인 적용을 돕는 실무차원의 실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C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Library of Congress Rule Interpretations(LCRIs)를 대신하여 RDA의 내용을 포함하는 Library of Congress-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olicy Statements(LC-PCC PS)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RDA의 전자형 버전인 RDA 툴킷이나 Cataloger's Desktop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OCLC 역시 OCLC RDA Policy Statement를 통해 RDA를 적용한 서지레코드를 차질없이 반입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다양한 협의 사항을 발표하고 기술적인 대비를 마쳤으며 회원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규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RDA의 도입 정도는 국가와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Survey of Academic Library Cataloging Practice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RDA의 기반이 되는 FRBR를 조사하고 있는 경우, RDA 레코드를 반입만 하고 기관 내에서 적용은 하지 않는 경우, RDA를 적용한 레코드가 일부 있는 경우, RDA로 카피 편목(copy cataloging)과 신규편목(original cataloging) 모두를 하는 경우까지 RDA 도입의 정도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Primary Research Group, 2013).

백지원(2013)은 RDA를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 도서관은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ISBD에 기반하여 MARC를 포맷으로 사용하되, RDA에서 새롭게 제안한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MARC의 태그를 추가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RDA를 수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미화(2014)는 국내에서 RDA 적용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LC RDA 지침을 분석하고, 사례로 시카고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의 3개 도서관에서 RDA 적용방안을 조사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로 3개 도서관은 LC RDA 지침을 바탕으로 RDA 레코드를 작성하였고 기관별로 특정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였음을 발견하였다.

### 2.3 국내 대학도서관의 목록현황

국내 대학도서관의 목록현황은 목록형식과 목록규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록형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2020)에 의한 조사 결과로 분석하였다.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460개 대학도서관에서 국내서의 경우 KORMARC 통합서지용(223개), KORMARC 자료유형별(207개)을 사용하고 있고 국외서(동양서)는 국내서와 유사하게 KORMARC 통합서지용(197개), KORMARC 자료유형별(196개)을 사용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MARC 21(36개)을 적용하고 있다. 국외서(서양서)의 경우는 MARC 21(205개)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KORMARC 통합서지용(112개), KORMARC 자료유형별(111개)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록규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2020)에 의한 조사 결과로 분석하였다.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460개 대학도서관에서 국내서의 경우 KORMARC 기술규칙(203개), KCR4(165개)을 사용하고 있고 국외서(동양

〈표 1〉 국내 대학도서관의 목록형식 현황(2019.3.1)

목록형식	국내서	국외서(동양서)	국외서(서양서)
KORMARC 통합서지형	223	197	112
KORMARC 자료유형별	207	196	111
MARC 21	6	36	205
기타	24	31	32
계		460	

서)는 KORMARC 기술규칙(189개), KCR4(145개)을 사용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AACR2(39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외서(서양서)의 경우는 AACR2(219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KORMARC 기술규칙(124개), KCR4(61개)을 사용하고 있었다. RDA의 경우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목록규칙은 국내서, 국외서(동양서)의 경우 KORMARC 기술규칙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고, 국외서(서양서)의 경우는 AACR2를 적용하는 도서관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ORMARC 기술규칙이 국내서와 국외서(동양서)의 경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조사 결과는 놀라운 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81년 KORMARC

을 개발하면서 함께 작성한 KORMARC 기술규칙을 사용하였다. KORMARC 기술규칙은 1983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판으로 출간되었고, 1985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보완판 발행, 1991년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을 거쳐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단행본용기술규칙’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KCR4에 통합되었다. 도태현(2002)은 KORMARC 기술규칙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출판되었으나 그 기본틀은 1985년 예비노트보완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KCR4의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KORMARC 기술규칙과 KCR의 통합작업을 하였고 2006년 2월부터 서양서를 제

〈표 2〉 국내 대학도서관의 목록규칙 현황(2019.3.1)

	국내서	국외서(동양서)	국외서(서양서)
KCR2	8	8	6
KCR3	46	45	17
KCR4	165	145	61
KORMARC 기술규칙	203	189	124
AACR2	11	39	219
기타	27	34	33
계		460	

위한 모든 목록레코드에 KCR4를 적용하고 있다. 1991년이 최종판인 KORMARC 기술규칙을 국내서와 국외서(동양서)에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목록규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표 2>를 보면 국외서(서양서)의 경우는 AACR2(219개)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DA의 경우는 통계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RDA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기타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의 통계조사 결과로는 RDA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타에 속하는 경우(33개)가 7.2%로 RDA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하더라도 기타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2.4 국내 목록규칙 교육현황

현재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주요 기관에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의 교육과정을 보면 목록규칙에 대한 교육보다는 MARC 중심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교육일정을 보면 모바일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에 총 129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교육과정 중 목록에 관련된 교육은 (사이버) KORMARC형식 (1기)(2월), (사이버) KORMARC형식 (10기)(11월) 교육이 있고 집합교육에 '통합서지용 KORMARC형식(도서)(3월)', 'KOLAS III 이해 및 활용(1기)(3월)', '통합서지용KORMARC형식(비도서)(7월)', 'KOLAS III 이해 및 활용

(2기)(10월)' 과정이 있다. 목록교육은 MARC 형식과 관련된 교육으로 RDA 등을 포함하고 있는 목록규칙에 관한 단일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목록규칙에 관한 교육은 MARC 교육 중 일부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단일 교육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9년 대학도서관 직무향상 교육과정'을 조사하면 '대학도서관 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과정' 등 총 13개 과정이 있는데 RDA에 관한 교육은 개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a).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2019년 교육과정'을 보면 총 5개의 교육일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1차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교육 1차(단행본)', '2차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교육 2차(비도서)', '3차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교육 3차(연간물)', '4차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교육 4차(단행본)', '5차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교육 5차(비도서) 교육'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b).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국립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RDA를 포함하는 목록규칙에 관한 단일 교육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양서 목록 시 RDA 목록규칙을 적용하고 있고, 대학도서관에서 서양서 신규목록 시 RDA가 반영된 MARC 21을 반입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

하면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및 이해정도, RDA 적용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연구 설계

#### 3.1 연구 절차

국내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 및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A에 관한 개인적인 지식, 경험, 교육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기존의 RDA 목록규칙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에서 RDA 적용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RDA를 도입한 주요 각종 도서관의 사례 중 도서관에서 RDA를 적용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대학도서관의 목록현황을 목록형식과 목록규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각각 국내서, 국외서(동양서), 국외서(서양서)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록규칙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 인식 및 요구현황, 대학도서관에서 RDA 적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전국의 대학도서관 중 서양서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기관마다 1명씩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RDA 목록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정리하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 3.2 설문조사 대상, 기간 및 방법

설문대상은 국공립 대학도서관, 사립 대학도서관, 전문 대학도서관 및 각종 학교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서 중 서양서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각 기관마다 1명씩 선정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19 한국도서관연감(한국도서관협회, 2020)' 기준으로 국공립 대학도서관(52개 기관 사서 669명), 사립 대학도서관(235개 기관 사서 865명), 전문 대학도서관(166개 기관 사서 162명) 및 각종 학교도서관(7개 기관 사서 36명) 등 총 460개 대학도서관, 1,732명 사서 중 서양서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각 기관마다 1명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2019 대학도서관연감(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9)'에 있는 대학도서관 목록을 참조하여 각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 도서관 조직도를 조사하여 목록 담당 사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목록 담당 사서가 여러 명인 경우는 그 중 서양서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를 우선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RDA 목록규칙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서양서는 주로 RDA 목록규칙이 반영된 MARC 21을 반입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서양서 목록 담당자가 RDA 목록규칙 현황에 관한 조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도

서관 홈페이지에서 조직도와 담당업무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460개 대학도서관에서 219개 대학도서관의 사서 219명이 선정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46개 국공립 대학도서관, 126개 사립 대학도서관, 42개 전문대학 도서관, 각종 학교도서관 5개가 선정되었다. 국공립 대학도서관과 사립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총 기관 수와 선정된 기관 수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국공립 대학도서관이 많이 선정되었다. 총 52개 국공립 대학도서관 중 46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국공립 대학도서관은 홈페이지에 조직도 및 담당자, 이메일 주소 등이 사립대학 도서관에 비해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 대학도서관이 선정된 기관 수가 적은 것은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이메일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이 낮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2차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2차 조사대상자는 1차 설문조사 시 참여하지 않은 도서관 중 목록 담당 사서가 2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조사대상자가 회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다른 목록 담당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66명의 사서가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1차 2020년 4월 3일 219명, 2차 2020년 5월 29일 66명).

요약하면 총 460개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메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된 219개 기관에서 28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83명이다. 설문조사는 2020년

4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1차로 2020년 4월 3일 219명에게 메일이 발송되었고, 5월 29일 2차로 추가된 66명에게 메일이 발송되어 총 285명에게 설문조사 참여 요청 메일이 발송되었다. 미회신된 경우에는 이메일 재발송 및 전화로 참여 요청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응답자와의 전화질의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RDA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바쁜 업무 등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RDA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설문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83부이고, 이 중 응답자가 설문결과 삭제를 요청한 1부를 제외한 8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 3.3 설문항목 구성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RDA 적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RDA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지식, 경험, 교육 등),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 인구학적인 특성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RDA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에 관해 22개 문항, 소속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에 관한 7개 문항, 인구학적인 특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문항은 기존의 RDA 목록

〈표 3〉 설문지의 구성

구분	측정요인	문항 수	출처
I.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지식, 경험, 교육 등)	전반적인 지식 평가	1	Hichens와 Symons(2009) Sanchez(2011)
	구체적인 지식 평가	10	Hichens와 Symons(2009) Sanchez(2011)
	AACR2, RDA에 관한 견해	1	Haider(2016) Hichens와 Symons(2009) Sanchez(2011)
	RDA 형식 사용경험	3	Haider(2016) US RDA TCC(2011)
	RDA를 접한 경로	1	김정현(2013) Sanner(2012)
	RDA 교육경험	4	Haider(2016) Hichens와 Symons(2009) Sanchez(2011) Sanner(2012) US RDA TCC(2011)
	RDA 교육에 관련된 의견	2	Sanner(2012)
II. 소속 도서관의 RDA 적용현황	소속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RDA 형식	1	
	소속 도서관시스템의 RDA 반영 여부	1	Haider(2016) US RDA TCC(2011)
	소속 도서관의 RDA 적용지침 소장 여부	1	Hichens와 Symons(2009)
	RDA가 반영된 MARC 21 반입 시, 서지레코드 입력방법	1	US RDA TCC(2011)
	향후 시스템 교체 시, RDA 반영계획 여부	1	Haider(2016) Sanchez(2011) US RDA TCC(2011)
	RDA의 실행 필요성	1	Haider(2016) US RDA TCC(2011)
	RDA 적용에 관련된 의견	1	Haider(2016) US RDA TCC(2011)
III. 인적사항		5	
	계	34	

규칙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 RDA를 도입한 주요 각국 도서관의 사례 중 도서관에서 RDA를 적용과정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 객관식 문항, 보기 선택형(단일, 복수 응답), 개방형 질문 등을 사용하였다. 선택 질문은 서베이몽키로 분석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은 지식, 경험, 교육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식에 관해서는

RDA에 대해 알고 있는 전반적인 지식 정도에 관한 문항과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경험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AACR2와 RDA에 대한 견해, RDA 사용경험, 교육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과 관련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알지 못한다: 1, 알지 못한다: 2, 보통이다: 3, 알고 있다: 4, 매우 잘 알고 있다: 5)를 사용하였고, 경험 및 교육에 관해서는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문항과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1.1 전반적인 지식 평가

RDA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은 지식이 없다는

응답(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이 44.0%로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20.7%에 비해 2배가 넘게 조사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알지 못한다, 3: 보통, 5: 매우 잘 알고 있다)로 조사한 결과 평균이 2.67로 보통보다 낮게 나와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나타내었다.

4.1.2 구체적인 지식 평가

RDA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총 10문항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4> RDA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정도(N=82)

구분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평균
응답 수	8(9.8%)	28(34.2%)	29(35.4%)	17(20.7%)	0(0.0%)	82(100.0%)	2.67

<표 5> RDA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정도(N=82)

	문항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평균
1	RDA의 개발배경	13(15.9%)	34(41.4%)	25(30.5%)	9(11.0%)	1(1.2%)	82(100.0%)	2.40
2	RDA 규칙 내용	16(19.5%)	41(50.0%)	21(25.6%)	4(4.9%)	0(0.0%)	82(100.0%)	2.16
3	AACR2와 RDA의 차이점	10(12.2%)	37(45.1%)	25(30.5%)	10(12.2%)	0(0.0%)	82(100.0%)	2.43
4	RDA를 반영한 MARC 21 신설필드	13(15.9%)	34(41.4%)	29(35.4%)	6(7.3%)	0(0.0%)	82(100.0%)	2.34
5	RDA의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 유형	13(15.9%)	38(46.3%)	23(28.1%)	8(9.8%)	0(0.0%)	82(100.0%)	2.32
6	FRBR	13(15.9%)	28(34.2%)	26(31.7%)	14(17.1%)	1(1.2%)	82(100.0%)	2.54
7	RDA의 구현형 및 개별자료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	12(14.6%)	42(51.2%)	24(29.3%)	4(4.9%)	0(0.0%)	82(100.0%)	2.24
8	RDA의 표현형 및 저작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	10(12.2%)	39(47.6%)	28(34.2%)	5(6.1%)	0(0.0%)	82(100.0%)	2.34
9	IFLA LRM	18(22.0%)	44(53.7%)	17(20.7%)	3(3.7%)	0(0.0%)	82(100.0%)	2.06
10	2019년 개정된 RDA의 특징	22(26.8%)	39(47.6%)	16(19.5%)	5(6.1%)	0(0.0%)	82(100.0%)	2.05

첫 번째 문항인 'RDA의 개발배경'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47명(57.3%),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10명(12.2%)으로 나타나 지식이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에 비해 4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문항은 '목록 시 RDA 규칙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이었다.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57명(69.5%),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4명(4.9%)으로 조사되었다. RDA 규칙을 알고 있어서 서지레코드 생성 시 RDA에서 해당 사항을 찾을 수 있다는 응답자가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RDA 규칙을 알지 못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RDA에 관련된 내용 중 RDA 규칙 자체에 대한 지식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RDA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문항은 AACR2와 RDA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47명(57.3%),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10명(12.2%)으로 나타났다. AACR2와 RDA로 목록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은 목록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서양서 목록 시 도서관에 납품되는 MARC 21의 경우 대부분 RDA가 적용되어 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MARC를 납품하는 대행사에 미리 요청하여 RDA 요소를 삭제하여 납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도 대행사 목록 담당자도 RDA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RDA 요소를 완전히 삭제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

는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앞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ACR2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RDA가 적용된 MARC 21을 납품 받아 서지레코드에 AACR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AACR2와 RDA로 목록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필수적인 내용이다. 목록 담당자가 MARC 21로 작성된 서지 레코드에서 RDA가 적용된 부분을 식별하는 것은 목록하는데 기본적인 자질에 해당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MARC 21로 서양서 목록을 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도서관 목록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문항은 'RDA를 반영하여 MARC 21에 신설된 필드'에 대한 질문이었다. RDA를 반영하여 MARC 21에 신설된 필드는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판(2014)에서 RDA를 반영하여 신설된 필드와 거의 유사하다.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판(2014)은 MARC 21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판에 대한 교육은 매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A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47명(57.3%),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6명(7.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RDA를 반영하여 MARC 21에 신설된 필드에 대한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문항은 'RDA의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 유형'에 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문항은 네 번째 문항인 'RDA를 반영하여 MARC 21에 신설된 필드'와 관련된다. RDA를 반영하여 MARC 21에 신설된

필드 중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 유형' 필드는 RDA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특징적인 필드에 속한다. RDA로 구축된 서지 레코드에서는 일반자료유형(GMD) 대신 자료유형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 유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RDA 목록규칙 중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51명(62.2%),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8명(9.8%)으로 확인되었다. RDA의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 유형은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판(2014)에 반영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평균값이 2.32로 낮게 나타났다.

여섯 번째 문항은 FRBR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한 질문이었다. FRBR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41명(50.1%),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15명(18.3%)으로 조사되어 RDA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 중 지식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곱 번째 '구현형 및 개별자료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에 관한 문항의 경우, 목록 시 RDA를 적용하는 도서관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핵심요소에는 서지데이터 기술시 최소한 적용할 수 있고, 쉽게 확인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문항에 대해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54명(65.8%),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4명(4.9%)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RDA의 경우 웹 기반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목록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고 선택사항이 많아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 유형 등 자원유형에 관련된 내용과 구현형 및 개별자료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 등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RDA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RDA의 표현형 및 저작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의 경우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49명(59.8%),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5명(6.1%)으로 나타났다.

아홉 번째, IFLA 도서관 참조 모형(IFLA Library Reference Model, IFLA LRM)에 관한 문항의 경우,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62명(75.7%),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3명(3.7%)으로 나타나 RDA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의 정도를 묻는 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 문항인 2019년 개정된 RDA의 특징에 관해서는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이 61명(74.4%), 지식이 있다는 응답(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이 5명(6.1%)으로 확인되었다. RDA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에 관한 10개 문항 중 응답자들이 IFLA LRM과 2019년 개정된 RDA의 특징에 관해 지식이 없다는 응답(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의 비율이 각각 75.7%, 74.4%로 나타난 것은 RDA의 최신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RDA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관련 문항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리커트 5점 척도(1 : 전혀 알지 못한다, 3 : 보통, 5 : 매우 잘 알고 있다)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평균인 문항은 'FRBR(M=2.54)'로 응답자들이 RDA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중 FRBR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은 '2019년 개정된 RDA의 특징(M=2.05)'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식 관련 문항들의 평균값을 평균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하면 FRBR(M=2.54), AACR2와 RDA의 차이점(M=2.43), RDA의 개발배경(M=2.40), RDA를 반영한 MARC 21 신설 필드(M=2.34), RDA의 표현형 및 저작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M=2.34), RDA의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M=2.32), RDA의 구현형 및 개별자료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M=2.24), RDA 규칙 내용(M=2.16), IFLA LRM(M=2.06), 2019년 개정된 RDA의 특징(M=2.05)의 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RDA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평균값이 2.05에서 2.54 구간에 분포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인식조사 평균값이 2.67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4.1.3 목록규칙에 관한 견해, 사용경험, 교육 경험 등

##### (1) 목록규칙에 관한 견해

목록규칙에 대한 견해는 AACR2와 RDA에 관해 조사하였다. RDA 미래 사용 의견에 관해 질문한 결과, RDA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인 'RDA가 AACR2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8명(9.8%)이 응답하고, 부정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RDA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의 목록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규칙이 복잡하고 선택사항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에 33명(40.2%)이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RDA의 미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ACR2의 미래 사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AACR2는 RDA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원의 목록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와 'AACR2는 우수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목록규칙 이용 시 비용이 들지 않는 등 장점이 있어서 계속 사용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24명(29.3%)이 응답했다.

요약하면 RDA의 미래 사용 전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40.2%)가 긍정적인 견해(9.8%)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15명이 견해를 밝혔는데 RDA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지 못해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1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RD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있었다.

- 바뀌는 규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현장에서 일할 때 느끼는 점입니다.
- 실무를 하는 사서들에게 많은 업무적인 부담감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 RDA 도입 여부에 대해 반대합니다.
- 현장에 RDA가 도입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기관 규칙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 RDA 적용 시 시스템 등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표 6〉 AACR2, RDA에 관한 견해(N=82)

AACR2, RDA에 대한 견해	응답 수
RDA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의 목록에 효과적이므로 AACR2를 대체할 것이다	8(9.8%)
AACR2는 우수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목록규칙 이용 시 비용이 들지 않는 등 장점이 있어서 계속 사용될 것이다	16(19.5%)
AACR2는 RDA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원의 목록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8(9.8%)
RDA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의 목록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규칙이 복잡하고 선택사항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33(40.2%)
기타	17(20.7%)
계	82(100.0%)

(2) RDA 형식 사용경험

RDA 형식 사용경험은 응답자가 접한 RDA의 형식, RDA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 책자형 및 RDA Toolkit 편리성에 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가 접한 RDA의 형식을 조사한 결과, RDA 책자형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명(12.2%)이고, RDA Toolkit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3.7%)이었다. RDA 책자형, RDA Toolkit 모두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69명(84.1%)이나 되었다.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이 RDA 적용 시 참고가 되는 RDA 목록규칙 자체를 접한 경우가 15.9%에 불과하다는 것은 RDA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3) RDA를 접한 경로

다음은 RDA를 접한 경로에 관련된 문항이었다. RDA를 접한 경로는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표기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RDA를 접한 경로는 주로 외부 직무교육(22명), 학부, 대학원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등 정규교육과정(22명)이었다. RDA를 접한 경로 중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부서 내 직무교육(2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문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 수험생 시절 수험서로 이론 특징 및 요약 공부를 하면서 접했습니다.
- 전혀 알지 못합니다.
- 목록 작성 중 RDA가 반영된 서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필드를 확인하였습니다.

〈표 7〉 RDA 형식 사용경험(N=82)

RDA 형식 사용경험	응답 수
RDA 책자형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RDA Toolkit은 이용경험이 없음)	10(12.2%)
RDA Toolkit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RDA 책자형은 이용경험이 없음)	3(3.7%)
RDA 책자형, RDA Toolkit 둘 다 이용한 경험이 있다	0(0.0%)
RDA 책자형, RDA Toolkit 둘 다 이용한 경험이 없다	69(84.1%)
계	82(100.0%)

- 졸업 후 별도 시험 준비 과정 중 알았습니다.
- 설명하는 교수님들도 또한 지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이 더 필요할 그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특이한 사항은 사서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준비로 인해 RDA를 접했다는 응답이 2개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하면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RDA 목록교육은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통한 외부 직무교육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부서 내 직무교육의 경우는 이번 조사를 분석해보면 RDA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교육할 부서 내 직원이 거의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에서 RDA를 접한 경우가 22명에 불과한 것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계속교육과정에 RDA 교육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RDA 교육경험

RDA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기술한 응답자는 9명(11.0%)이었다. 총 9명 중 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받은 경우는 3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RDA에 관한 부분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분적인 교육을 받은 기관을 기술한 응답자는 14명(17.1%)이었다. 부분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 및 과정에는 D대학교 문헌정보학 과정, S대학교 대학원 '메타데이터의 이해',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서지용 KORMARC 형식(비도서) (2019년 1기) 과정, E대학교 목록수업, 국립중앙도서관의 'KCR4판 주요내용 및 목록동향' 과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정명은 기술하지 않음), J대학교 '메타데이터 구조론', 국립중앙도서관 'RDA, 새로운 도전'(심포지엄), P대학교 '정보조직론' 등이 포함되었다. 사서들

<표 8> RDA를 접한 경로(복수 응답 가능)

RDA를 접한 경로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기준 (N=88)	응답자 수 기준 (N=82)
부서 내 직무교육	2	2.3	2.4
외부 직무교육(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22	25.0	26.8
세미나, 워크숍	11	12.5	13.4
웹진, 웹 기반 과정(LC RDA Training Materials 등), 웹사이트, 블로그 등 인터넷 자원	4	4.5	4.9
단행본, 저널(학술논문) 등	7	8.0	8.5
학부, 대학원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등 정규교과과정	22	25.0	26.8
기타	20	22.7	24.4
계	88	100.0	107.2

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통해 RDA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과정의 경우는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과정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을 통해 RDA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RDA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총 82명의 응답자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가 44명(53.6%), 5명(6.1%)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사서들이 RDA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서들의 RDA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RDA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RDA 교육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MARC 환경에서 RDA 적용 및 실습(55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RDA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53명), RDA 목록규칙 자체에 대한 설명(43명), RDA Toolkit 소개 및 사용법(34명), 2019 RDA 개정 내용(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RDA 교육방법 중 선호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2일 이상 외부 직무교육(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교육과정(38명), 1일 이내 외부 직무교육(30명), 세미나, 워크숍(16명), RDA 교육자료를 활용한 스스로 학습(16명), RDA Toolkit을 이용한 스스로 학습(10명), 학부, 대학원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등 정규교과과정(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RDA 목록규칙 교육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도록 한 결과, 주요한 응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교육으로 숙지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표 9> RDA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N=82)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평균
응답 수	1(1.2%)	4(4.9%)	33(40.2%)	32(39.0%)	12(14.6%)	82(100.0%)	3.61

<표 10> RDA 교육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교육내용(복수 응답 가능)

RDA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내용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기준(N=212)	응답자 수 기준(N=82)
RDA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	53	25.0	64.6
RDA 목록규칙 자체에 대한 설명	43	20.3	52.4
MARC 환경에서 RDA 적용 및 실습	55	26.0	67.1
RDA Toolkit 소개 및 사용법	34	16.0	41.5
2019 RDA 개정 내용	25	11.8	30.5
기타	2	0.9	2.4
합계	212	100.0	258.5

〈표 11〉 RDA 교육방법 중 선호하는 방법(복수 응답 가능)

RDA 교육방법 중 선호하는 방법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기준 (N=161)	응답자 수 기준 (N=82)
1일 이내 외부 직무교육(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30	18.6	36.6
2일 이상 외부 직무교육(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1	25.5	50.0
세미나, 워크숍	16	9.9	19.5
온라인 교육과정(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38	23.6	46.3
RDA 교육자료(PPT 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스스로 학습	16	9.9	19.5
RDA Toolkit을 이용한 스스로 학습	10	6.2	12.2
학부, 대학원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등 정규교과과정	8	5.0	9.8
기타	2	1.2	2.4
계	161	100.0	196.3

- 온라인 교육으로 우선 접하여 인지하고 싶습니다.
- RDA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깊이 있는 교육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관련 강좌를 좀 많이 개설해서 사서들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 RDA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 현재의 목록 실무에서는 인원도 감축되어 RDA 목록규칙을 적용하여 목록할 여력이 없습니다.
- 예전에 교육받고 관심은 있었으나 현업으로 도서관 적용이 어려웠다. 추가로 다양한 교육이 있다면 자관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 대학도서관은 RISS 종합목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국내 전체 대학도서관의 입장, RISS의 역할 등이 궁금합니다.
- 수준별 단계별 교육으로 단기간이 아닌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 여러 기관에서의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이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서들의 참여가 가능한 교육일정이 필요합니다.
- 대학원 재학 중 RDA와 관련된 아티클을 읽어본 적은 있으나, 실무에 나와보니 접할 일이 거의 없어 RDA 목록규칙이 생소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목록 담당 사서들의

RDA 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기간 교육뿐만 아니라 단계별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욕구도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 4.2 소속 도서관의 RDA 적용현황

### 4.2.1 소속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RDA 형식

소속 도서관에서 목록업무에 참조할 RDA 소장형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를 보면 RDA의 소장형식으로 가장 많은 것은 책자형으로 9개 기관(11.0%)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RDA를 어떤 형태로든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68개 기관(82.9%)이나 되었다. 서양서 목록 시 AACR2를 사용하는 기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계(2020)를 보면 총 460개 기관 중 21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AACR2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대부분 MARC 21로 마크를 반입 받고 있는데 RDA가 반영된 MARC 21을 사용하면서도 참조할 만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목

〈표 12〉 소속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RDA 형식(N=82)

소속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RDA 형식	응답 수
책자형	9(11.0%)
RDA Toolkit	3(3.7%)
도서관 자체 매뉴얼에 규정한 RDA 적용지침 혹은 규정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모두 소장하고 있지 않음	2(2.4%)
계	68(82.9%)
	82(100.0%)

록 시 참고할 수 있는 RDA 형식 자체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서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기관 자체에서도 RDA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2 소속 도서관시스템의 RDA 반영 여부  
소속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록시스템이 RDA 관련 필드(예를 들면 336, 337, 338 필드)를 이용자화면 출력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앞서 설문조사에서 RDA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62.2%에 해당하는 51명이 RDA의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 유형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60% 이상의 응답자가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은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의 조사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2.3 소속 도서관의 RDA 적용지침 소장 여부  
소속 도서관에서 RDA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지침 소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별도의 적용지침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6개 기관(7.3%)으로 나타났고, 적용지침이 없는 경우가 76개 기관(92.7%)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기관에서 RDA 적용지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4 RDA가 반영된 MARC 21 반입 시, 서지레코드 입력방법

소속 도서관에서 RDA가 반영된 MARC 21 서지레코드를 반입하는 경우, RDA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을 보면 RDA를 적용하는 9개 기관 중 MARC 21 서지레코드 중 RDA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도서관 자체 적용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는 각각 4개, 5개 기관으로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RDA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RDA 요소를 삭제한다는 응답이 17개 기관(20.7%)으로 도서관 자체 적용지침에 따라 RDA 요소 중 일부를 반영하여 수정한다는 응답 7개 기관(8.5%)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RDA 목록규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생각하면 삭제보다는 자체 적용지침에 따라 일부 반영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록형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460개 대학도서관 중 국외서(서양서) 목록 시 MARC 21을 적용하는 도서관이 205개 기관이나 되었다. MARC 21에는 RDA가 반영되어 있다. 현재 RDA를

〈표 13〉 RDA가 반영된 서지레코드 입력방법(N=82)

RDA가 반영된 서지레코드 입력방법	응답 수
RDA를 적용하고 있고 반입 받은 MARC 21 서지레코드 중 RDA 요소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4(4.9%)
RDA를 적용하고 있고 반입 받은 MARC 21 서지레코드 중 RDA 요소를 도서관 자체 적용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5(6.1%)
RDA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목록규칙(예를 들면 AACR2 등)에 도서관 자체 적용지침을 규정하여 RDA 요소 중 일부를 반영하여 수정한다	7(8.5%)
RDA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RDA 요소는 삭제한다	17(20.7%)
해당 사항 없음	49(59.8%)
계	82(100.0%)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RDA를 반영한 서지레코드를 반입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RDA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MARC에서 RDA가 반영된 부분을 식별할 수 있다.

#### 4.2.5 향후 시스템 교체 시, RDA 반영계획 여부

소속 도서관에서 향후 도서관시스템 교체 시 RDA 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는 경우는 23개 기관(28.1%)으로 나타나고, 없는 경우는 59개 기관(72.0%)으로 조사되었다. RDA 요소 중 자료유형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되는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 유형 등은 도서관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서관시스템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RDA 요소 중 일부 요소는 구현되기 어렵다. RDA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 4.2.6 RDA 목록규칙의 실행 필요성

RDA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RDA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성(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을 인식한 경우는 17명(20.7%),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불필요

하다, 매우 불필요하다)는 19명(23.2%)으로 나타나 각각의 의견에 대한 비율이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 4.2.7 기타

RDA 목록규칙 적용에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을 질문한 결과 응답 중에 주요한 응답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현재 각 도서관의 목록자들이 RDA 목록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관계로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각 도서관으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서인력이 충원된다는 전제하에 진행 필요합니다.
- RDA 목록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매체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적인 여건(인력, 비용 등)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추가교육이나 교육자료가 필요합니다.
- 현재 서양서 마크를 내려받을 때 RDA 형식을 그대로 살려 서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서와 동양서는 서지구축 인력 부족으로 어렵습니다.

- RDA 목록규칙이 대학도서관 전반에 활성화 되면 적용 여부를 고민할 예정입니다.

### 4.3 인구학적인 특성

성별 분포는 여성이 62명(75.6%)으로 남성 20명(24.4%)의 약 3배 정도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는 20대가 7명(8.5%)으로 적고 30대 28명(34.2%), 40대 29명(35.4%), 50대 18명(22.0%)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5년 이하 23명(28.1%), 6년 이상~10년 이하 21명(25.6%), 11년 이상~15년 이하 19명(23.2%), 16년 이상~20년 이하 10명(12.2%), 21년 이

상 9명(11.0%)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목록업무 중 서양서 담당 사서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목록업무는 각 도서관에서 상대적으로 근무경력이 적은 사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력이 10년 이하인 경우가 44명(53.7%)으로 많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근무기관 분포는 국공립대학교 도서관 15명(18.3%), 사립대학교 도서관 53명(64.6%), 전문대학 도서관 12명(14.6%), 각종 학교 도서관 2명(2.4%)으로 확인되어서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비율(64.6%)이 높게 나타났다.

〈표 14〉 조사대상의 인구학적인 특성(N=82)

구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	20	24.4
	여	62	75.6
연령	20대	7	8.5
	30대	28	34.2
	40대	29	35.4
	50대	18	22.0
근무경력	5년 이하	23	28.1
	6-10년	21	25.6
	11-15년	19	23.2
	16-20년	10	12.2
	21년 이상	9	11.0
목록업무경력	5년 이하	48	58.5
	6-10년	25	30.5
	11-15년	4	4.9
	16-20년	4	4.9
	21년 이상	1	1.2
근무기관	국공립대학교 도서관	15	18.3
	사립대학교 도서관	53	64.6
	전문대학 도서관	12	14.6
	각종 학교도서관	2	2.4

## 5. 시사점

국내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 및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RDA 목록규칙을 적용하는 현황 및 RDA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 목록규칙의 흐름은 2010년 RDA 발표 이후, 2019년 RDA의 전면적인 개정까지 진행된 데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RDA 목록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RDA에 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및 현황,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을 알려주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대학도서관에서 서양서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현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에 관한 지식을 전반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지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특히 구체적인 지식의 경우 RDA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지식의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RDA 교육내용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RDA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되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RDA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총 50%가 넘는 응답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RDA 실행을 전후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 북미와 유럽 주요 국가의 도서관에서는 RDA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 LC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RDA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2012년 말 호주국립도서관은 물론 전역의 주립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RDA 교육을 실시하였다(김정현, 2013).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계속교육과정에 RDA에 관한 독립적인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에는 RDA의 개념모형인 FRBR, FRAD, FRSAD에 관한 내용, RDA의 특징, RDA의 구성, RDA 목록 시 핵심적인 요소, RDA 규칙 내용에 대한 설명, IFLA LRM 등 이론적인 내용과 RDA를 적용하여 MARC 21로 작성하는 과정, AACR2와 RDA로 목록 할 경우의 차이점, RDA Toolkit 사용법 등 목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면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RDA 교육에서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MARC 환경에서 RDA 적용 및 실습(6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서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RDA 교육내용에 MARC 21에 RDA로 목록하는 실습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실습을 포함한 대면수업과정, 스스로 편리한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 등 다양한 과정으로 개설하고, 단계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등으로 수준별 교육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1일 과정, 2일 과정, 5일 과정 등 교육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RDA 목록규칙 적용에는 사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서가 속한 도서관이 RD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차원에서 RDA로 전환하기 위한 도서관 규정의 개정, RDA 적용지침 마련, 사서들을 대상으로 RDA 교육 지원, RDA Toolkit 구입 등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 RDA 적용지침은 자관 목록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 각 도서관 목록 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목록 입력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RDA를 개별 도서관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록입력지침에 RDA 적용지침을 추가해야 한다. 이 밖에 RDA를 적용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RDA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목록담당 사서뿐만 아니라 도서관장 및 전체 사서들의 RDA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들의 RDA에 관련된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RDA 형식 사용경험, RDA를 접한 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서들이 실제로 RDA 책자형, RDA toolkit 등을 접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8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서들이 RDA를 접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개인 차원의 노력의 부족이 아닌 사서가 소속된 기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목록 시 참고할 목록규칙 및 목록형식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도서관 차원에서 구비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기관에서 RDA 적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RDA는 내용과 구성이 AACR2와는 다른 새로운 규칙이다. RDA는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어 적용하기가 어렵다. 개별 도서관에서 RDA 전체에 대해 참고자료 없이 적용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LC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규칙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RDA 입력지침을 작성하였다. LC RDA 적용지침(LC Core Elements)은 서지데이터 작성의 일관성을 위해 RDA 핵심요소의 기술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LC에서 RDA 적용지침을 만들어 배포한 것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기관에서 RDA 적용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면 이를 참고로 하여 각 도서관에서 자관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RDA를 적용하려는 도서관에서 처음에 RDA 규칙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RDA 적용지침이 마련된다면 자관의 RDA 목록입력지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 및 RDA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RDA에 관한 개인적인 지식, 경험, 교육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기존의 RDA 목록규칙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에서 RDA 적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RDA를 도입한 주요 각국 도서관의 사례 중 도서관에서 RDA를 적용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대학도서관의 목록현황을 목록형식과 목록규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각각 국내서, 국외서(동양서), 국외서(서양서)로 세분

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록규칙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 인식 및 요구현황, 대학도서관에서 RDA 적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항목을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 경험,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RDA 전반적인 지식정도에 관한 문항, 구체적인 지식에 관한 문항, AACR2와 RDA에 대한 견해 및 RDA 사용 경험, 교육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RDA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이 2.67로 보통보다 낮게 나와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지식 관련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FRBR(M=2.54), AACR2와 RDA의 차이점(M=2.43), RDA의 개발배경(M=2.40), RDA를 반영한 MARC 21 신설필드(M=2.34), RDA의 표현형 및 저작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M=2.34), RDA의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M=2.32), RDA의 구현형 및 개별자료의 기록에 관한 핵심요소(M=2.24), RDA의 규칙 내용(M=2.16), LRM(M=2.06), 2019년 개정된 RDA의 특징(M=2.0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RDA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평균값은 2.05에서 2.54 구간에 분포하여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인식조사 평균값인 2.67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AACR2와 RDA에 대한 견해, RDA 사용경험, 교육경험 등에 조사한 결과, AACR2와 RDA에 대한 견해는 RDA의 미래에 사용될 전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40.2%)가 긍정적인 견해(9.8%)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RDA 책자형이나 RDA Toolkit을 접해 보지 못한 응답자가 84.1%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대학도서관에서 RDA 책자형이나 RDA Toolkit을 소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RDA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관해 질문한 결과, MARC 환경에서 RDA 적용 및 실습(6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목록교육은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판에 관한 교육으로 RDA가 반영된 MARC 21에 관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사서들의 RDA 실습에 관한 요구가 높으므로 RDA 교육과정의 개설 시 RDA를 적용하는 실습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사서들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RDA 교육방법 중 선호하는 교육방법을 조사한 결과, 2일 이상 외부 직무교육(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교육과정(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46.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학부, 대학원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등 정규교과과정은 9.8%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업무와 병행하여 교육받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정규교육과정보다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부 직무교육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속 도서관의 RDA 적용현황은 응답자의 소속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RDA 형식, 도서관시스템의 RDA 반영 여부, 도서관의 RDA 적용지침 소장 여부, RDA가 반영된 MARC 21 반입 시 서지레코드 입력방법, 향후 시스템 교체 시 RDA 반영계획 여부, RDA 목록규칙의 실행 필요성, RDA 목록규칙 적용에 관련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소속 도서관의 RDA 적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RDA 목록규칙 형식을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관(82.9%)이 대부분이었고 RDA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도 대부분 기관(92.7%)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소속 도서관에서 RDA가 반영된 MARC 21을 반입하는 경우 서지레코드 입력방법을 조사한 결과, RDA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9개 기관 중 RDA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도서관 자체 적용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는 각각, 4개, 5개 기관으로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RDA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RDA 요소를 삭제하고 있었고 일부 도서관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목록규칙에 RDA 요소 중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RDA에 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및 현황,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을 알려주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전국 대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가 파악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여 각 도서관에서 서양서 목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1명씩 선정하였다. 따라

서 조사 결과가 대학도서관의 RDA 현황 및 사서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조사 결과 RDA 교육에 대한 사서들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RDA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RDA 교육은 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육기간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에서 RD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차원에서 RDA 적용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의 제정, 사서들의 RDA 교육 지원, RDA Toolkit 구입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기관에서 RDA 적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RDA는 규칙이 방대하고 선택사항과 별법이 많아 개별 도서관에서 적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LC RDA 지침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RDA 적용지침을 배포하여 개별도서관에서 자관의 상황에 맞게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에 발표된 RDA 목록규칙으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에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과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현황 및 사서들의 인식을 알려주어 RDA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 연구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가기관에서 RDA 지침을 발표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 상황을 반영한 지침에 대한 연구, RDA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 등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9.12.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출처: <https://edu.nl.go.kr>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 도태현 (2002). 한국의 자동화목록법 관련 규칙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KORMARC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55-72.
- 백지원 (2013). RDA 교육훈련 동향 분석 및 국내 적용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379-403.
- 이미화 (2014). 미국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에 관한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77-97.
- 이미화 (2019). 2019 개정 RDA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97-11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a.12.10).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출처: [http://etc.riss.kr/education/course\\_list.jsp?Mon=13&search\\_year=2019&edu\\_name](http://etc.riss.kr/education/course_list.jsp?Mon=13&search_year=2019&edu_nam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b.12.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출처: <https://unicat.riss.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2.10).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출처: <http://www.rinfo.kr>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9). 2019 대학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한국도서관협회 (2020). 2019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Haider, S. (2016). *Survey of Emerging Cataloging Practices: Use of RDA by Academic Libraries*. New York: Primary Research Group.
- Hitchens, A. & Symons, E. (2009). Preparing catalogers for RDA train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 691-707.
- Library of Congress. *RDA Classroom Training Plan for 2012 - March 30, 2013 February 27, 2012* (Updated June 15, 2012). Available: [https://www.loc.gov/aba/rda/pdf/RDA\\_Long-Range\\_Training\\_Plan.pdf](https://www.loc.gov/aba/rda/pdf/RDA_Long-Range_Training_Plan.pdf)
- MacLennan, A. & Walicka, A. (2019). An investigation into cataloguers' experiences with RDA.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2(6), 1-12.
- Primary Research Group (2013). *The Survey of Academic Library Cataloging Practices*. (2013 ed.). New York: Primary Research Group.
- RDA Steering Committee (2017). *Implementation of the LRM in RDA*. Available: <http://www.rda-rsc.org/ImplementationLRMinRDA>
- RDA Steering Committee (2021). *About RDA*. Available: <http://www.rda-rsc.org/content/about-rda>
- Sanchez, E. R. (2011). RDA, AACR2, and you: what catalogers are thinking. In: Sanchez, E. R. ed. *Conversations with Catalogers in the 21st Century*. Santa Barbara, California:

Libraries Unlimited, 20-70.

Sanner, E. M. (2012). Preliminary training for RDA: a survey of cataloging department heads. *Journal of Library Metadata*, 12(2-3), 213-241.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Executive Summary. Available:

[https://www.loc.gov/aba/rda/source/RDA\\_report\\_executive\\_summary.pdf](https://www.loc.gov/aba/rda/source/RDA_report_executive_summary.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k, Ji-Won (2013). Analysis of trends in RDA on-the-job training and its application model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379-403.

Doh, Taehyeon (2002).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the rules related with MARC in Korea: focused on KORMARC.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2), 55-72.

Kim, Jeong-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Korea Education & Reserach Information Service (2019a,12.10).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University Libraries. Available:

[http://etc.riss.kr/education/course\\_list.jsp?Mon=13&search\\_year=2019&edu\\_name](http://etc.riss.kr/education/course_list.jsp?Mon=13&search_year=2019&edu_name)

Korea Education & Reserach Information Service (2019b,12.20). Korea Education & Reserach Information Service Union Catalog. Available: <https://unicat.riss.kr>

Korea Education & Reserach Information Service (2020,2.10). Academic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Available: <http://www.rinfo.kr>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0). 2019 Korea Library Year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Lee, Mihwa (2014).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applying RDA in US academic librarie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77-97.

Lee, Mihwa (2019). A study on analyzing the features of 2019 revised RD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97-116.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12.1).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ian Education. Available: <https://edu.nl.go.kr>

The Korea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y Association (2019). 2019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y Yearbook. Seoul: The Korea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y Association.